

[바둑]

‘관록’의 이세돌이나 ‘무서운 신인’ 한상훈이나

LG배 4년만에 한국 품으로

이세돌·한상훈 동반 결승행...한국팀 7회 우승 예약



<이세돌 9단>

LG배 세계기왕전 패권을 4년 만에 한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 4강전에서 이세돌 9단과 한상훈 초단이 결승에 진출함으로써 한국은 지난 2004년 이창호 9단이 우승한 이래 4년 만에 LG배를 탈환하게 됐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른 이세돌 9단은 2003년에 이어 이 대회 두번째 정상에 도전하게 된다. 이세돌 9단은 제5, 7회 대회에 이어 세번째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제7회 대회에 이어 두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른 이세돌 9단은 2003년에 이어 이 대회 두번째 정상에 도전하게 된다. 이세돌 9단은 제5, 7회 대회에 이어 세번째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제7회 대회에 이어 두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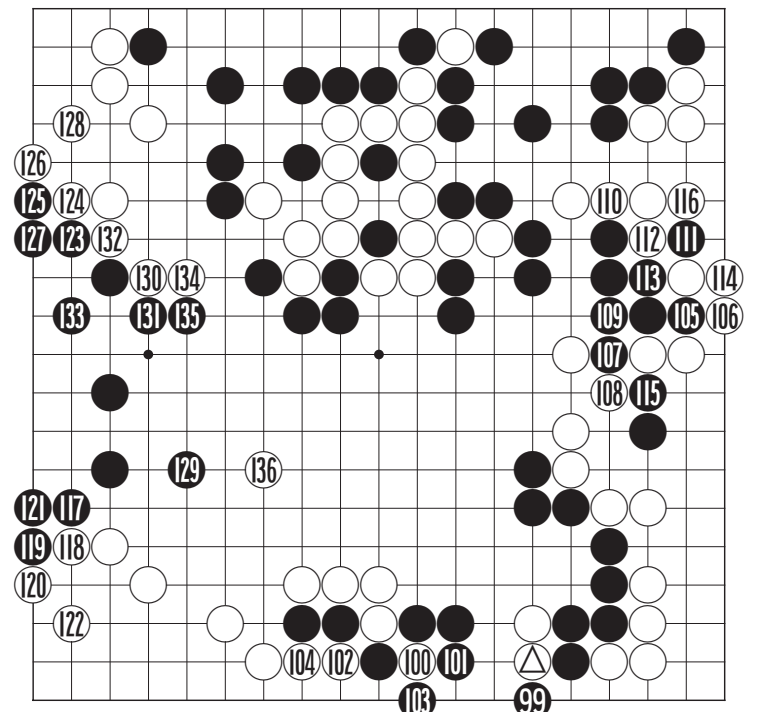
앞세운 한상훈 초단과 격돌한다. 국제대회 경험과 관록, 최근 컨디션으로 볼 때 이 9단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상훈 초단>

신인감자로서 이미지를 굳힌다는 복안이어서 만만찮은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결승 3번기는 내년 2월이 열린다.

백 승리 확정 6보(99~136) 일반부 결승전 白 신희원 5단 黑 오재관 5단



백 스가 100으로 끊기위한 예비수단으로 승리를 더욱 굳건히 한 마무리 편치가 되었다. 이때 흑은 101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104까지 하변의 흑 두점이 잡혀 갈수록 백의 승리는 굳어져 간다.

“미래의 국수는 바로 나”

강진서 ‘김인 국수배 바둑대회’ 개막... 제1회 ‘김인 국수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 17~18일 강진에서 열린다.



공무원들의 바둑 삼매경... 지난 14일 강원도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제6회 강원도 시·군 공무원 친선 바둑대회'에서 각 시도 대표 선수들이 대국하고 있다.

“최종국 가자”

허영호 6단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허 6단은 지난 14일 스키야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회 SK가스배 신에프로 10절전 결승 2국에서 윤준상 6단을 184수 만에 불계로 꺾었다.

백홍석 5단 기성전 순항... 송태근 꺾고 4강 안착

백홍석 5단이 기성전 패권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백 5단은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9기 기성전 본선 토너먼트 8강전에서 송태근 8단을 163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경기 안산팀, 전국 아마바둑 최고봉 등극

남 단체 결승, 인천 남동구팀 꺾어... 경기 안산팀이 제2회 전주시장배 전국아마바둑단체전 남성 단체부 패권을 차지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상업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and '부자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